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증정모임 진행

조선소년단기를 펴며 휘날리며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에서 출발하여 수도 평양에 이르는 전 로정에 올린 충성의 편지이달리기참가자들의 씩씩한 발구름소리는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어 사회주의강국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주인공으로 역세게 자라나는 조선소년단원들의 담찬 기상을 잘 보여주었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변혁과 발전으로 향한 혁명적진군길에 생신함과 약속하는 힘을 더해주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증정모임이 5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진행되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두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성봉 만경대혁명학원 원장, 청년동맹중앙군, 혁명학원 원아들, 각 도편지이달리기참가자들, 평양시안의 소년단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갈채속에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에게 정중히 전달되었다.

문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자라나는 세대대들의 희망과 꿈을 아름답게 꽃피워주시며 부강번영의 찬란한 레일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안기는 우리 인민들과 전체 소년단원들의 절절한 소망이고 더없는 행복이

라고 말하였다. 그는 아버지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소년단원들이 있으며 원수님의

제일 큰 기쁨은 소년단원들이 미래의 역군으로 든든히 자라나는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몸도 마음

도 역세게 단련하여 사회주의조국의 대하여 언급하였다.

학과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며 어려서부터 고상한 도덕품성과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지니고 조국보위와 나라살림살이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충성의 편지에서 다진 결의를 빛나는 실천으로 이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끝없는 충직한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교대자, 공산주의후비대로 든든히 준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편지이달리기과정을 통하여 많은것을 배우고 체험하였다고 하면서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편지를 올리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끝없는 기쁨과 격정을 토로하였다.

그들은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행복담을 누리는 귀동자, 귀동녀가 아니라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소년혁명가, 소년애국자, 지역체를 겸비한 앞날의 강성조선의 유능한 인재가 될 줄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증정모임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발걸음따라 주체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소년단의 대부대가 있기에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무궁창창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본사기자

송고한 후대사랑이 펼친 공화국의 창창한 미래

조선소년단원!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우며 긍지높은 부름인가.

세상을 둘러보면 부모들의 보살핌속에 한창 배워야 할 나이에 전쟁과 분쟁, 질병과 기아로 목숨을 잃거나 정신육체적으로 불우자가 된 아이들,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매는 아이들이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허나 공화국에서는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미래사랑, 후대사랑속에 자라나는 세대대들이 송고한 정신세계를 지닌 소년혁명가로, 사회주의조선의 장래를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역세게 자라나고있다.

얼마전 공화국에서는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이달리기가 진행되어 조선소년단원들이 송고한 편지를 맞는 온 나라 인민들을 더욱 기쁘게 해주었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시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축복의 편지를 올린 70돛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충성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하루빨리 드리고싶은 열의가 대렬마다에 끓어넘치는 속에 진행된 300만 소년단원들의 편지이달리기이다.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나라의 방방곡곡 기나긴 로정을 달리고달린 소년단원들의 모습은 위대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세대대들의 송고한 정신도덕적품목을 남김없이 보여준 역사의 화폭으로 아로새겨졌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은 힘이나마 보탬을 주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며 성장의 걸음걸음을 참되게 견고하는 전

국의 학생소년들은 조선소년단장립 77돛을 맞으며 좋은 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소년》호방사포들을 마련하여 인민군대에 보내줌으로써 온 나라 인민들을 감동시키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온에 의하여 결정되고 자라나는 세대대들이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상상도 할수 없다.

오늘날 이 나라의 아이들이 얼마나 높은 정신세계를 지니고있는가 하는것은 다음의 몇가지 사실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라레치는 불길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는 소년단원들과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생명의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흙마대를 쌓아 학교에 모셔진 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를 모위한 소년단원들, 수도의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주변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정성껏 관리하고 많은 꽃관목과 백도라지를 금수상태양공전수목원에 보내주고있는 세대대들의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화폭,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2000여명의 학생소년들이 김일성소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수여받은 사실들...

하더라도 이들이 지닌 그렇듯 송고한 정신도덕적품목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 것인가.

이 땅의 수백만 소년단원들이 리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고 따르는것은 그 품이 자기들의 밝은 오늘과 래일을 지켜주고 빛내주는 한 없이 마스롭고 위대한 삶의 품이기때문이다. 지금도 항일대전의 나날

창취와 압박이 없는 인민의 세상인 유격근거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귀가에 쟁쟁히 울리여온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아름다와질것이다.

이런 송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어머니수령님께서 세세대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들에게 온갖 친어머니사랑을 다 베풀어주시었다.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에 연필문제를 상정시키고 소년단원들이 마음껏 공부할수 있게 해주셨으며 아동단원들을 제정어려운 시기와 전후복구건설의 첫삽을 박을 때에도 학교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먼저 세우도록 해주셨다.

바로 이런 마스로운 손길아래 아동단원들은 소년혁명가들로 역세게 자랐다.

그가운데는 원수들의 갖은 회유와 위협, 살점이 떨어지는 잔악한 교묘에도 굴하지 않고 혁명의 비밀을 끝까지 지켰으며 사형장에서 회생되는 마지막순간에 《일제놈들을 타도하라!》, 《조선혁명 만세!》를 높이 불러 적로 강화발진시키기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셨다.

천리마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주체53(1964)년 4월 소년단원들의 대회를 소집해주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있어 전례없는 기적이 창조되던 1970년대와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1980년대에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83(1994)년의 6월에도 소년단원들의 대회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셨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소년단원들을 위해 베풀어주시던 어머니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은 그

대로 이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소년단사업을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중대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선소년단이 나아가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었으며 소년단원들이 혁명의 후비대로 성장하는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결연하게 이끌어 주셨다.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불변의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후대관은 공화국의 력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나라현정이 어렵고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후대들을 위해서는 아까운것 없이 돌려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사랑이 있었기에 온 나라 소년전진들의 불빛이 더 밝게 빛났고 경치 좋은 명승지마다에 자리잡은 소년단야영소들에서는 야영기들이 펄펄 휘날렸으며 학생소년들은 시련의 시기에도 언제나 밝게 웃으며 씩씩하게 자라날수 있었다.

세상에는 혁명적인 구호를 내리고 긍지높은 력사를 새겨온 소년조직들이 적지 않았지만 오늘날까지도 자기의 붉은 피줄기를 이어오면서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줄기차게 빛내어나가는 소년조직은 오직 조선소년단밖에 없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어 자라나는 세대대들을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 소년혁명가들로 키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이 땅에서는 또 얼마나 감동깊은 화폭들이 새겨졌던가.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가 남긴 또 하나의 전설같은 이야기를 여기에 다시 적는다. 이름은 정일심, 나이는 14살, 재령군 금강고급중학교 학생...

《당에서는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을 위하여 전례없이 강력한 로고정을 부여해주었습니다. 평양에 온 소년단대표들의 건강상태를 료해하던 과정에 의료원들은 정일심소녀에게서 본인도 모르는 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체없이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의사들의 구체적

진단결과 소녀의 병은 하루이틀의 치료로는 해결할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렇게 되어 일심이는 두달동안이나 수도의 이릉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그 나날에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들도 상상조차 못했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회의준비로 일분일초를 쪼개며 밤을 새우시던 때에 정일심학생과 같이 치료를 받아야 할 소년단 대표들에 대한 대책을 취해주시었던것이다.

소년단원들을 위해 베푸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 가 어찌 이뿐이겠는가.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할하려는 적대세력의 발악이 극도에 달하였던 준엄한 나날에도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계시며 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소년단대표들무대!》, 《사랑하는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무대!》이라고 사랑담아, 정답아 불러주시며 력사적인 연설도 하여

주신 경애하는 그이이다. 지난해 말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를 마련해주신 력사적인 서한도 보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의 첫날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조국번영의 새로운 한해를 소년단원들의 밝은 웃음소리, 찬란한 발구름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것은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크나큰 힘이고 기쁨이라고, 혁명의 훌륭한 교대자인 300만 소년단원들이 있기에 주체위업의 전도와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무궁창창하다고 말씀하실 때 온 나라 소년단원들과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그 얼마나 끝없는 격정으로 설레었는가.

정정 우리 당이 하늘처럼 받드는 인민앞에, 인민우에 우리의 아이들이 있다고, 더 담차고 더 활기있게 자라야 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는 억만자루의 품이 들어도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행복으로, 영광으로 된다고,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제1순위는 언제나 후대들을 위한 시책이며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철대불변의 원칙, 영원한 국책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며 아이들을 위해, 소년단원들을 위해 대대같은 사랑을 언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시여 이 나라의 아이들, 300만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참된 아들딸로,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주인공들로 명망하고 대바르게,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여 주체조선의 무적막강한 힘은 보다 백배해지고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본사기자 유금주